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운보 김기창》展



《운보 김기창》展(아라리오갤러리 천안, 2025) 전시전경.

전시제목 : 《운보 김기창》展
전시일정 : 2025년 2월 18일(화) - 2026년 3월 22일(일)
전시장소 : 아라리오갤러리 천안(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전시작품 : 총 106점(운보작 99점, 우향작 6점, 부부합작도 1점)

[문의]

아라리오갤러리 / E. info@arariogallery.com

자료목차	1. 전시개요	-----	2
	2. 전시서문	-----	3-5
	3. 전시전경	-----	6
	4. 대표작품	-----	7-9
	5. 작가연보	-----	9-10

1. 전시개요

아라리오갤러리 천안은 2025년 2월 18일(화)부터 2026년 3월 22일(일)까지 《운보 김기창》展을 개최한다. 운보(雲浦) 김기창(1914-2001)¹은 근현대 한국 화단에서 전통 한국화의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한 화가다. 후천적 청각장애를 지녀 고요함 속에 살아간 그의 화풍은 비범하도록 역동적인 필치와 기운생동한 묘사로 가득하다. 이번 전시는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운보의 70여 년 작품인생이 지니는 미적 가치와 미술사적 의의를 재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1914년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서 태어난 운보는 일곱 살이 되던 해 장티푸스를 앓은 후유증으로 청각을 상실했다. 1930년 어머니의 중개로 이당(以堂) 김은호(1892-1979)에게 사사한 그는 그림을 배운 지 반년 만인 1931년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이하 '선전')에서 입선 및 등단하였다. 1937년에는 선전 최고상인 '창덕궁상'을 수상하여 평단의 주목을 받았으며 1940년 추천작가로 선정된 이후 1944년까지 매년 출품했다. 해방 이후인 1946년 우향(雨鄕) 박래현(1920-1976)과 혼인하였고, 부인과 예술적 영향을 주고 받으며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였다. 운보는 우향과 사별한 뒤 어머니의 고향인 충청도 청주로 낙향하여 1984년 '운보의 집'을 완공했다. 이번 전시는 운보의 전생애 화업을 망라하여 선보인다. 운보와 우향이 함께 제작한 합작도 및 우향의 대표작 일부를 함께 만나볼 수 있어 구성이 다채롭다.



운보 김기창, <밤새(부엉이)>(1972), 종이에 수묵채색, 99 x 180 cm. 아라리오컬렉션. ©(재)운보문화재단.

¹ 운보의 생년월일은 호적 상 1913 년생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으나, 화가 본인의 회술에 따라 1914 년 갑인년(甲寅年) 2 월 18 일 출생일이 확인된다. 운보의 생전에 출간된 자서전 및 전작도록에 해당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운보 김기창, 『나의 사랑과 예술』(서울: 정우사, 1993), p. 20; 『운보 김기창 전작도록 (1)』(서울: 도서출판 에이피인터내셔널, 1994), p. 17.

2. 전시서문

아라리오갤러리 천안은 한국 근대 화단의 대가 운보(雲浦) 김기창(1914-2001)의 작품세계 전반을 소개하는 전시를 개최한다. 운보 김기창을 대가로 단언할 수 있는 지점은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활동 기간에 보여준 한국화의 현대화를 위해 시도한 여러 실험들과 그 결과물로서의 다양한 작품 연작들을 성공적으로 소개한 데 있다. 본 전시는 작가의 초기 1930년대 작업부터 후반기인 1990년대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시기별 작업 전반을 소개함으로써 운보의 미적 가치와 미술사적 의의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려 한다.



운보 김기창, <군마도>(1950-1960년대 추정), 종이에 수묵채색; 4폭 병풍, 169 x 335 cm (154 x 80 cm x 4 ea.)
아라리오컬렉션. ©(재)운보문화재단.

운보 김기창은 8세에 장티푸스로 인한 고열로 청각이 마비돼 후천성 청각 장애인이 되었지만, 침묵의 고통을 극도로 예민한 시각적 심미성으로 발전시킨 한국 화단의 대가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던 운보는 17세가 되던 1930년 이당(以堂) 김은호(1892-1979)에게 전통 산수화와 인물화 기법을 배우며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했다. 이듬해인 1931년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을 시작으로 이후 최고상인 창덕궁상 수상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매년 수상했다. 이 시기 운보는 사실적인 구상 미술에 주력했다. 광복 이후에는 1946년 결혼한 여류 화가 우향(雨鄉) 박래현(1920-1976)과 함께 새로운 화풍 실험에 주력했다. 당시 일상을 그린 풍속을 다루면서 공간을 분할하고 재조립한 화면 구성이 돋보이는 입체주의적 작품과 반추상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1950년대 초반에는 신앙화 시리즈로 주목을 받았다. 예수의 출생부터 부활까지 총 30점의 연작으로 구성된 작품 <예수의 생애>(1952-1953)는 화풍뿐 아니라 배경, 복장, 인물 등을 모두 조선 시대로 변환시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윤보 김기창, <청산호반(靑山湖畔)>(1981), 비단에 수묵채색, 69 x 139.8 cm 아라리오컬렉션. ©(재)윤보문화재단.

1950년대 후반에는 한자의 획을 자유분방한 윤필로 표현하며 추상화한 문자도를 선보이며 한국화의 추상화 가능성을 시도했다. 더불어 이 시기는 윤보의 화조영모도(花鳥翎毛圖)가 크게 주목을 받았던 때이기도 하다. 유명한 군마, 투계, 부영이 등 윤보의 화조영모도는 활발하고 힘이 넘치는 필력과 과감한 구도, 그리고 섬세한 표현으로 인정받았다. 196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상을 시도했는데, 이 시기의 모든 실험과 시도들은 한국화의 새 가능성과 현대화를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76년 급작스럽게 아내와 사별한 후 윤보는 오랫동안 매료되었던 민화 특유의 바보스러운 해학성과 서민의 소박한 삶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방식에서 영향을 받은 '바보산수' 연작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대에는 산 전면에 짙게 깔린 푸른색이 매력인 '청록산수' 연작을 그렸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초반에는 붓 걸레를 먹에 찍어 대형 화폭에 그린 '점과 선' 연작을 제작했다. 이처럼 윤보는 청각 장애를 극복했을 뿐 아니라 미적으로 승화시켰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나가는 모습으로 오랫동안 존경과 사랑을 받아 왔다.



윤보 김기창, <노점>(1953-1955)

종이에 수묵채색, 57 x 66 cm

아라리오컬렉션. ©(재)윤보문화재단.

본 전시는 윤보의 1930년대 초기 작품부터 1990년대 후기 작품들까지 모두 아우르는데, 첫 번째 전시장에서 영모, 화조, 풍속화의 대표 작품들을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해 신앙화, 인물, 추상, 문자도, 바보산수, 청록산수 등 윤보 시리즈의 대부분을 선보인다. 그중 윤보의 영모도를 대표하는 특유의 거침없고 역동적인 필력과 말과 부영이 각각의 표현에서 드러나는 기운생동한 묘사력과 그림 전반의 긴장감이 백미인 1950-60년대작 추정 <군마도>와 1972년작 <밤새(부영이)>는 특히 눈여겨볼 작품이다. 청각장애로 인해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을 폭발적인 필력을 통해 그림으로 승화해 내는 윤보의

영모도 중 단연 수작으로 인정받는 작품들이다. 운보의 화조도에서는 거침없고 비범한 구도와 섬세한 표현미가 돋보이는 1970년작 <비파도>와 1971년작 <무궁화 삼천리 금수강산>이 눈에 띈다. 광복 이후 새로운 화풍으로의 실험을 본격화하면서 입체주의적 경향을 선보였던 1953-1955년작 <노점>도 한국화의 새로운 가능성과 현대화를 모색하는 운보의 초창기 고민과 시도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운보 김기창, <비파도>(1970), 종이에 수묵채색; 6폭 병풍, 171.5 x 393 cm (164 x 61.5cm x 2 ea, 164 x 64.5 cm x 4 ea.)
아라리오컬렉션. ©(재)운보문화재단.

이번 전시에서는 운보의 작품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가이자 한국화의 현대화라는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고민했던 우향 박래현의 작품도 일부 소개된다. 전시에 출품된 1950년대작 <등나무와 참새>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이 부부의 대형 합작도인 4폭 병풍 작품이다. 우향이 먼저 등나무를 그린 뒤 운보가 참새를 그리고 글을 더한 작품이다. 우향의 힘차고 시원한 붓질과 과감한 구도가 돋보이는 등나무와 운보의 세밀한 묘사력이 돋보이는 수작이다. 운보와 더불어 우향이 새로운 한국화를 모색하고 실현해 내던 시기의 대표작인 <불안>(1962), <작품>(1960년대)도 소개되는데, 당시 해외 미술계에서 유행하던 앵포르멜의 영향이 느껴지는 이 작품들에서는 대상성이 사라지고, 황색이나 적갈색의 추상성이 강조된 색면 덩어리와 매혹적인 번짐 효과가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다.

운보 김기창의 70년 작품 인생은 도전과 실험의 연속이었다. 일찍 찾아온 화단의 인정과 이후의 안정적 상태에 안주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실험했다. 작가로서 사적인 미적 탐구뿐 아니라 한국화의 현대화와 세계화라는 시대적 문제의식을 저버리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새로운 시도를 거듭했다. 본 전시는 이러한 지점을 주목하며 시작되었다. 전시에서 소개되는 운보의 70년 작품 세계와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우향의 작품들을 통해 도전하고 실험하는 작가로서의 운보의 미적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길 바란다.

3. 전시전경



《운보 김기창》展(아라리오갤러리 천안, 2025) 전시전경.

4. 대표작품(총 106점 중 28점)



운보 김기창

<화조병풍>(1942-1943년 추정)

비단에 수묵채색; 8폭 병풍

211 x 449 cm (140 x 44.5 cm x 8 ea.)

아라리오컬렉션.

©(재)운보문화재단.



운보 김기창

<군마도>(1950-1960년대 추정)

종이에 수묵채색; 4폭 병풍

169 x 335 cm (154 x 80 cm x 4 ea.)

아라리오컬렉션.

©(재)운보문화재단.



운보 김기창

<수태고지>(1952-1953)

비단에 채색

63 x 75 cm

아라리오컬렉션.

©(재)운보문화재단.



운보 김기창

<노점>(1953-1955)

종이에 수묵채색

57 x 66 cm

아라리오컬렉션.

©(재)운보문화재단.



운보 김기창

<정물>(1955년 경)

종이에 수묵채색

45.5 x 34.7 cm

아라리오컬렉션.

©(재)운보문화재단.



운보 김기창, 우향 박래현

<등나무와 참새>(1950년대)²

종이에 수묵담채; 4폭 병풍

169 x 335 cm

(154 x 61.7 cm x 4 ea.)

아라리오컬렉션.

©(재)운보문화재단.



운보 김기창

<추상>(1960-1964)

종이에 수묵채색

150 x 135 cm

아라리오컬렉션.

©(재)운보문화재단.



운보 김기창

<만추의 이미지>(1964)

종이에 수묵채색

137.5 x 133 cm

아라리오컬렉션.

©(재)운보문화재단.



운보 김기창

<불새>(1968)

종이에 수묵채색

31 x 39 cm

아라리오컬렉션.

©(재)운보문화재단.



운보 김기창

<미인도>(1960년대)

비단에 채색

163 x 84 cm

아라리오컬렉션.

©(재)운보문화재단.

² 본 전시의 출품작 상세정보는 운보의 전작도록에 수록된 도판 및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하였다. 『운보 김기창 전작도록 (2)』 (서울: 에이피인터내셔널, 1994), p. 303.



윤보 김기창
<비파도>(1970)
 종이에 수묵채색; 6폭 병풍
 171.5 x 393 cm (164 x 61.5cm x 2 ea, 164 x 64.5 cm x 4 ea.)
 아라리오컬렉션.
 ©(재)윤보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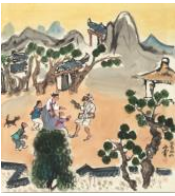
윤보 김기창
<무궁화 삼천리 금수강산>(1971)
 종이에 수묵채색
 115 x 372 cm
 아라리오컬렉션.
 ©(재)윤보문화재단.



윤보 김기창
<밤새(부엉이)>(1972)
 종이에 수묵채색
 99 x 180 cm
 아라리오컬렉션.
 ©(재)윤보문화재단.



윤보 김기창
<세 악사>(1976)
 비단에 채색
 57 x 75 cm
 아라리오컬렉션.
 ©(재)윤보문화재단.



윤보 김기창
<옛장수>(1976)
 비단에 수묵채색
 55.5 x 50.5 cm
 아라리오컬렉션.
 ©(재)윤보문화재단.



윤보 김기창
<연당(蓮塘)>(1976)
 비단에 수묵채색
 54 x 50 cm
 아라리오컬렉션.
 ©(재)윤보문화재단.



윤보 김기창
<연당(蓮塘)>(1976)
 종이에 수묵채색
 51.5 x 46 cm
 아라리오컬렉션.
 ©(재)윤보문화재단.



윤보 김기창
<바보화조(국화와 닭)>(1977)
 종이에 수묵채색
 66.5 x 62.5 cm
 아라리오컬렉션.
 ©(재)윤보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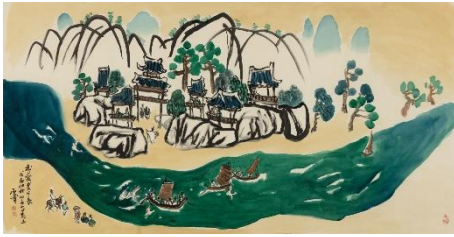
윤보 김기창
<신행 가는 길>(1970년대)
 비단에 수묵채색
 104 x 133 cm
 아라리오컬렉션.
 ©(재)윤보문화재단.



윤보 김기창
<강촌(江村)>(1980년대)
 종이에 수묵채색
 180 x 120 cm
 아라리오컬렉션.
 ©(재)윤보문화재단.



윤보 김기창
<청산호반(靑山湖畔)>(1981)
 비단에 수묵채색
 69 x 139.8 cm
 아라리오컬렉션.
 ©(재)윤보문화재단.



윤보 김기창
<하일(夏日)>(1988)
 비단에 수묵채색
 68 x 135 cm
 아라리오컬렉션.
 ©(재)윤보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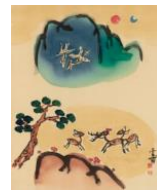
윤보 김기창
<부엉이>(1985)
 비단에 수묵채색
 86 x 101 cm
 아라리오컬렉션.
 ©(재)윤보문화재단.



윤보 김기창
<문자도>(1985)
 종이에 수묵
 75 x 93 cm
 아라리오컬렉션.
 ©(재)윤보문화재단.



윤보 김기창
<화조병풍>(연도미상)
 종이에 수묵채색; 8폭 병풍
 183 x 359 cm
 (130.5 x 30.9 cm x 8 ea.)
 아라리오컬렉션.
 ©(재)윤보문화재단.



윤보 김기창
<장생도(長生圖)>(연도미상)
 비단에 수묵채색
 51 x 41.5 cm
 아라리오컬렉션.
 ©(재)윤보문화재단.



우향 박래현
<불안>(1962)
 종이에 수묵채색
 121 x 105 cm
 아라리오컬렉션.



우향 박래현
<정물>(1960년대 이전)
 종이에 수묵채색
 68.5 x 44 cm
 아라리오컬렉션.

5. 작가연보

- 1914** 2월 18일, 서울시 종로구 윤니동 18번지에서 아버지 김승환과 어머니 한윤명의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다.
- 1921** 인사동 소재 승동보통학교에 입학하다. 장티푸스를 앓은 후유증으로 후천성 청각장애를 얻게 되다.
- 1930** 승동보통학교를 졸업하다. 아들의 재능을 알아본 어머니의 중개로 이당 김은호 화백을 사사하다.
- 1931**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이하 '선전')에서 <판상도무(板上跳舞)>로 입선하다. 어머니가 '운포(雲圃)'라는 화명을 지어준다.
- 1932** 제11회 《선전》에서 <수포(水圃)>로 입선하다. 10월 15일, 어머니가 산후부황과 심장마비로 38세에 급서하다.
- 1933-36** 제12회-제15회 《선전》에서 4회 연속 입선하다. 제1회 《후소회전》(1936)에 출품하다.
- 1937** 제16회 《선전》에서 <고담(古談)>으로 특선, 최고상인 '창덕궁상' 수상하다.
- 1938** 제17회 《선전》에서 <여름>으로 특선, '총독부상' 받다.
- 1939** 제18회 《선전》에서 <고완>으로 3번째 특선, <물방앗간의 아침>으로 입선하다.
- 1940** 제19회 《선전》에서 <땡별>으로 4회 연속 특선, 이당 문하생 중 첫 '추천작가'가 되다. 《선전》 추천작가인 심형규, 김인승, 김경승 등 9인이 모여 구신회(九農會)를 창립하다
- 1941** 제20회 《선전》에 '추천작가'로서 <춘앵무>를 출품하다. 함흥에서 작품 30점으로 개인전을 개최하다. 제1회 《이목회전》에 출품하다.
- 1942** 제21회 《선전》에 '추천작가'로서 <화춘>, <혹시>를 출품하다.

- 1943 우향 박래현을 만나다.
- 1945 8월 15일, 아호 '운포(雲圃)'에서 '口'자를 버겨 '甫'자로 해방시키다. 이후 낙관 및 서명을 '운보(雲甫)'로 하다.
- 1946 1월 17일, 우향과 조선국립민속박물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 1947 한국 최초의 부부전을 삼월백화점(현 신세계백화점) 화랑에서 개최하다.
- 1950 동화백화점 화랑에서 부부전 진행 도중 6.25 전쟁이 발발하여 작품 모두 분실하다.
- 1951 군산시 구암동 390번지 처가의 창고를 개조하여 고달픈 피난생활을 시작하다. 구암동 피난생활 도중 총 30점의 성화 연작 <예수의 생애>(1952-1953)를 제작하다.
- 1952 예술의 방향성에 관한 갈등에 의하여 실험의 시기를 겪다. 정통 동양화의 탈피만이 보다 높은 차원의 예술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전통 동양화의 평면적 구성에서 벗어나 입체적 구성을 시도하다.
- 1954 서울 성북구 성북동 55-1로 환도하다.
- 1957 한국화의 정립과 발전을 위해 백양회(白陽會)를 창립, 화신백화점에서 제1회 전시를 개최하다.
- 1963 제7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한국 최초로 출품하다. 5월, 제2회 '문예상(文藝賞) 미술분상'을 수상하다.
- 1965 뉴욕국제미술전에 초대받아 <태고의 이미지>, <유산의 이미지>, <청자의 이미지> 등을 출품하다.
- 1967 제9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한국대표단으로서 참가하다. 중남미 여행 후 우향은 뉴욕에 머무르며 7년 간 판화의 세계에 몰입하다.
- 1968 로스앤젤레스 시 초대로 부부전 개최하다.
- 1969 제1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하 '국전')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에 피선, 이후 제21회, 제23회 심사위원 역임하다.
- 1970 뉴욕문화센터에서 <김기창 성화전> 개최하다. 현대화랑 <김기창화백전>에서 청록산수를 선보이다.
- 1976 1월 2일, 우향 박래현 타계. 수필집 『침묵의 세계에서』(민음사) 출간하다.
5월, 남경화랑 개인전에서 <바보산수> 첫 발표하다.
- 1977 산문집 『나의 사랑과 예술』(정우사) 출간하다. 7월 9일, 성북동 자택 부지에 운향미술관을 개관하다. 문화공보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받다.
- 1980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운보 김기창 초대 회고전 화도 50주년 기념전> 개최하다.
- 1981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받다. 예술원 정회원으로 위촉되다.
- 1984 충북 청원군(현 청주시) 북일면 형동리에 '운보의 집' 완공하다. 한국을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 <성당과 수녀와 비둘기> 기증하다.
- 1988 청주 '운보의 집'에 '운보 공방'을 설립하여 개원식을 가지고, 자서전인 『침묵의 심연에서』(법조각) 출판기념회도 겸하다.
- 1989 병세 이후 5년 만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 <김기창>을 개최하다.
기념도록으로 『운보 김기창』(에이피인터내셔널) 발간하다. 예술원 정회원이 되다.
- 1990 천안 종합터미널 개장 1주년 기념전 <운보 김기창>을 아라리오화랑에서 개최하다.
- 1991 IOC가 올림픽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한 『세계 유명작가 50인 판화집』에 한국대표로 선정되다.
- 1993 운보의 1930-1940년대 작품 32점이 북한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이 확인되다.
10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운보 김기창 팔순기념 대회고전> 개최하다.
- 1994 『운보 김기창 전작도록』(에이피인터내셔널) 발간하다.
- 1996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청주에서 요양하며 투병하다.
- 2001 1월 23일, 향년 87세의 나이로 타계하다. '금관문화훈장'을 수여받다.

ARARIO GALLERY CHEONAN
Unbo Kim Ki Chang



Installation view of *Unbo Kim Ki Chang* at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2025.

Title : **Unbo Kim Ki Chang**

Dates : 18 Feb 2025 – 22 Mar 2026

Venue : ARARIO GALLERY CHEONAN (43 Mannam-ro, Dongnam-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Korea)

Artworks : 106 works in total
 (Inc. 99 works by Unbo Kim Ki Chang, 6 works by Woohyang Park Re Hyun, and 1 collaborative work)

[Inquiry]
 ARARIO GALLERY SEOUL / E. info@arariogallery.com

<u>Table of Content</u>	1. Exhibition Overview	-----	2
	2. Exhibition Introduction	-----	3-5
	3. Installation View	-----	6
	4. Selected Artworks	-----	7-9

1. Exhibition Overview

ARARIO GALLERY CHEONAN presents the exhibition *Unbo Kim Ki Chang*, from 18 February 2025 (Tue) to 22 March 2026 (Sun). Unbo (雲甫) Kim Ki Chang (1914–2001)³ was a pioneering artist who played a pivotal role in modernizing traditional Korean painting within Korea's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cene. Having acquired a hearing disability at a young age and lived in silence throughout his life, he conveyed his artistic vision through works distinguished by dynamic brushstrokes and an extraordinary sense of vitality. This exhibition seeks to reassess the aesthetic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Unbo's seven-decade artistic career, spanning from the 1930s to the 1990s. Born in 1914 in Seoul, Unbo lost his hearing at the age of seven due to complications from typhoid fever. In 1930, with his mother's arrangement, he began studying under Idang (以堂) Kim Eun-ho (1892–1979), a master of traditional Korean painting. Remarkably, within just six months of training, he was selected for the 10th Joseon Art Exhibition (hereinafter "Seonjeon") in 1931, marking his formal debut. He gained further recognition in 1937 when he received the Changdeokgung Prize, the highest honor at Seonjeon. Appointed as a "Recommended Artist" in 1940, he continued to exhibit annually until 1944. Following the Korea's liberation, he married Woohyang (兩鄉) Park Re Hyun (1920–1976) in 1946. The couple profoundly influenced each other's artistic development while forging their own distinct creative paths. After Woohyang's passing, Unbo relocated to Cheongju, Chungcheong-do—his mother's hometown— where he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Unbo's House* in 1984. This exhibition offers a comprehensive survey of Unbo's artistic legacy, encompassing works from across his career. In addition to his individual pieces, the presentation includes collaborative paintings created with Woohyang, along with a selection of her representative works, providing a multifaceted view of their artistic dialogue.



Unbo Kim Ki Chang, *Night Birds (Owls)* (1972)

Ink and color on paper, 99 x 180 cm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⁴

³ Unbo's date of birth was mistakenly recorded as 1913 in the family register. However, according to the artist himself, he was born on February 18, 1914, in the Gap-in year (甲寅年). This fact is documented in his autobiography and the catalogue raisonné published during his lifetime. Unbo Kim Ki Chang, *My Love and Art* (Seoul: Jungwoosa, 1993), p. 20; *Catalogue Raisonné (I) Un-bo Kim Ki-Chang* (Seoul: Editions API, 1994), p. 17.

⁴ The English notation of "Unbo" has been used interchangeably as "Unbo (Un-bo)" and "Woonbo." In this exhibition's title and

2. Exhibition Introduction

ARARIO GALLERY CHEONAN is hosting an exhibition showcasing the comprehensive artistic world of Unbo Kim Ki Chang (1914–2001), a master of modern Korean art. Kim Ki Chang's status as a master is affirmed by his numerous experimental endeavors aimed at modernizing Korean painting throughout his career, spanning from the modern to the contemporary era, and by his successful introduction of diverse series of works resulting from these efforts. This exhibition aims to revisit Unbo's aesthetic values and his significance in art history by presenting a wide range of works from his early period in the 1930s to his later works in the 1990s.



Unbo Kim Ki Chang, *Horses* (c. 1950-1960s)

Ink and color on paper; four-panel folding screen, 169 x 335 cm (154 x 80 cm x 4 ea.)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At the age of eight, Unbo lost his hearing due to a high fever caused by typhoid, becoming deaf. However, he transformed the pain of silence into an extremely sensitive visual aesthetic, establishing himself as a master in Korean art. A gifted painter from an early age, Unbo began formal art training in 1930 at the age of 17 under Idang Kim Eun Ho (1892–1979), learning traditional landscape and portrait painting techniques. Starting with his acceptance into the Joseon Art Exhibition in 1931, he continued to be selected year after year, eventually receiving the highest honor, the Changdeokgung Prize. During this period, Unbo focused on realistic figurative art. After Korea's liberation, he concentrated on experimenting with new artistic styles alongside his wife, the female painter Woohyang Park Re Hyun (1920–1976), whom he married in 1946. They created works with Cubist tendencies, characterized by compositions that divided and reassembled spaces, and semi-abstract works reflecting customs of daily life. In the early 1950s, his *The Life of Jesus* series (1952–1953), comprising 30 pieces from the birth to the resurrection of Jesus, garnered attention for reinterpreting biblical themes through a Korean lens, transforming the settings, attire, and characters to the Joseon Dynasty.

artwork captions, "Unbo" has been adopted, following the standard used in the artist's catalogue raisonné. However, the foundation has chosen to use "Woonbo" as its official notation.



Unbo Kim Ki Chang, *Blue Mountains and Lakeshore* (1981)

Ink and color on silk, 69 x 139.8 cm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In the late 1950s, he explored abstraction through *Munjado* (Pictorial Ideograph), expressing Chinese characters with free, dynamic brushstrokes, thus attempting abstraction in Korean painting. This period also marked the rise of his *Hwajo Yeongmodo* (Paintings of Birds, Flowers, and Animals), celebrated for their vigorous brushwork, bold compositions, and delicate details, notably seen in his famous works of horses, cockfight, owls and more. From the 1960s, Unbo fully embraced abstraction, and his artistic experiments during this era played a vital role in proposing new possibilities for Korean painting's modernization. After the sudden passing of his wife in 1976, he began his *Babo Sansu* (Foolish Landscape Style) series, influenced by the humorous and naive aesthetic of *Minhwa* (Korean Folk Painting), vividly capturing the simplicity of ordinary life. In the 1980s, he created the *Cheongrok Sansu* (Blue and Green Landscape Style) series, featuring mountainous landscapes dominated by deep blue-green hues. In the early 1990s, he produced the *Dots and Lines* series, created by dipping a mop into ink and applying it to large canvases. Unbo not only overcame his hearing impairment but also sublimated it into an aesthetic strength, continually evolving and earning lasting respect and admiration.



Unbo Kim Ki Chang
Street Stalls (1953-1955)

Ink and color on paper

57 x 66 cm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This exhibition encompasses works from Unbo's early 1930s period to his later works in the 1990s. It begins with key pieces of *Hwajo Yeongmodo*, and *Genre Painting* in the first gallery, followed by major series such as religious paintings, portraits, abstracts, *Munjado*, *Babo Sansu* and *Cheongrok Sansu*. Notable works include *Horses* (c. 1950-1960s) and *Night Birds (Owls)* (1972), exemplifying his dynamic brushstrokes, vibrant energy, and tension-filled compositions—masterpieces that transformed the emotions he couldn't express verbally into powerful artistic expressions. In his *Hwajo* (Flowers and Birds) paintings, works like *Loquat* (1970) and *Mugunghwa, or Rose of Sharon: A Land of Splendid Rivers and Mountains* (1971) stand out for their bold compositions and delicate beauty. His *Street Stalls* (1953–1955),

created during his early experiments with Cubism after Korea's liberation, reflects his exploration of new possibilities in modern Korean painting.



Unbo Kim Ki Chang, *Loquats* (1970)

Ink and color on paper; six-panel folding screen, 171.5 x 393 cm (164 x 61.5cm x 2 ea, 164 x 64.5 cm x 4 ea.)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The exhibition also features select works by Woohyang Park Re Hyun, who significantly influenced Unbo's artistic journey and shared his vision for modernizing Korean painting. Notably, *Wisteria and Sparrows* (1950s), a rare large folding screen collaboration between the couple, features wisteria painted by Woohyang and sparrows with calligraphy added by Unbo. This piece showcases Woohyang's dynamic brushwork and bold composition of wisteria alongside Unbo's meticulous detail. Additionally, works like *Anxiety* (1962) and *Work* (1960s) reflect the influence of Art Informel, popular in the international art scene at the time, characterized by the absence of subject matter and abstract color fields in yellow and reddish-brown with striking spreading effects.

Unbo Kim Ki Chang's 70-year artistic career was marked by continuous challenges and experiments. He never settled into complacency despite early recognition and stable success, consistently pushing the boundaries of artistic exploration. Beyond personal aesthetic pursuits, he remained deeply engaged with the issues of modernizing and globalizing Korean painting, undertaking new experiments until his final moments. This exhibition highlights these aspects, offering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aesthetic values of Unbo as an artist dedicated to challenge and experimentation, alongside the works of Woohyang, who greatly influenced his artistic path.

3. Installation View



Installation view of *Unbo Kim Ki Chang* at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2025.

4. Selected Artworks (28 out of a total of 106)

**Unbo Kim Ki Chang*****Folding Screen with Flowers and Birds (c. 1942-1943)***

Ink and color on silk; eight-panel folding screen
211 x 449 cm (140 x 44.5 cm x 8 ea.)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Unbo Kim Ki Chang*****Horses (c. 1950-1960s)***

Ink and color on paper; four-panel folding screen
169 x 335 cm (154 x 80 cm x 4 ea.)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Unbo Kim Ki Chang*****The Annunciation (1952-1953)***

Color on silk
63 x 75 cm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Unbo Kim Ki Chang*****Street Stalls (1953-1955)***

Ink and color on paper
57 x 66 cm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Unbo Kim Ki Chang*****Still Life (c. 1955)***

Ink and color on paper
45.5 x 34.7 cm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Unbo Kim Ki Chang & Woohyang Park Re Hyun**

Wisteria and Sparrows (1950s)⁵
Ink and color on paper; four-panel folding screen

169 x 335 cm
(154 x 61.7 cm x 4 ea.)

ARARIO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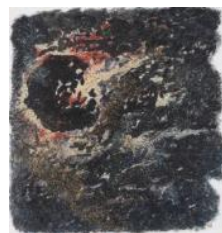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Unbo Kim Ki Chang*****Abstraction (1960-1964)***

Ink and color on paper
150 x 135 cm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Unbo Kim Ki Chang*****The Image of Late Autumn (1964)***

Ink and color on paper
137.5 x 133 cm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Unbo Kim Ki Chang*****Phoenix (1968)***

Ink and color on paper
31 x 39 cm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Unbo Kim Ki Chang*****Portrait of a Beauty (1960s)***

Color on silk
163 x 84 cm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⁵ Th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works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has been compiled based on the plates and content included in Unbo's Catalogue Raisonné. *Catalogue Raisonné (II) Un-bo Kim Ki-Chang* (Seoul: Editions API, 1994), p. 303.



Unbo Kim Ki Chang
***Loquats* (1970)**

Ink and color on paper; six-panel folding screen
171.5 x 393 cm (164 x 61.5cm x 2 ea, 164 x 64.5 cm x 4 ea.)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Unbo Kim Ki Chang
***Mugunghwa, or Rose of Sharon: A Land of Splendid Rivers and Mountains*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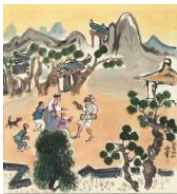
Ink and color on paper
115 x 372 cm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Unbo Kim Ki Chang
***Night Birds (Owls)* (1972)**
Ink and color on paper
99 x 180 cm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Unbo Kim Ki Chang
***Three Musicians* (1976)**
Color on silk
57 x 75 cm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Unbo Kim Ki Chang
***Korean Hard Taffy Peddler* (1976)**
Ink and color on silk
55.5 x 50.5 cm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Unbo Kim Ki Chang
***Lotus Pond* (1976)**
Ink and color on silk
54 x 50 cm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Unbo Kim Ki Chang
***Lotus Pond* (1976)**
Ink and color on paper
51.5 x 46 cm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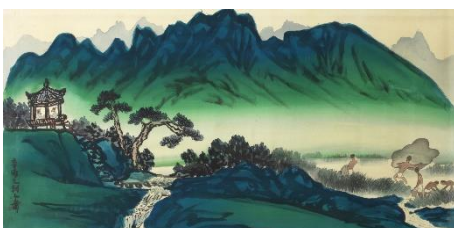
Unbo Kim Ki Chang
***Chrysanthemum and Chickens in Babo Hwajo (Foolish Flowers and Birds Style)* (1977)**
Ink and color on paper
66.5 x 62.5 cm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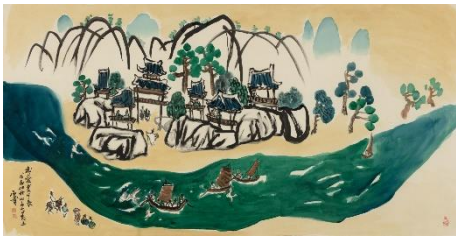
Unbo Kim Ki Chang
***Newlyweds Headed to the Groom's House* (1970s)**
Ink and color on silk
104 x 133 cm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Unbo Kim Ki Chang
***Riverside Village* (1980s)**
Ink and color on paper
180 x 120 cm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Unbo Kim Ki Chang
***Blue Mountains and Lakeshore* (1981)**
Ink and color on silk
69 x 139.8 cm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Unbo Kim Ki Chang
Summer Day (1988)

Ink and color on silk
68 x 135 cm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Unbo Kim Ki Chang
Owls (1985)

Ink and color on silk
86 x 101 cm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Unbo Kim Ki Chang
Munjado (Pictorial Ideograph)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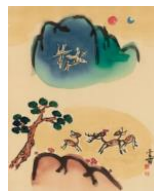
75 x 93 cm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Unbo Kim Ki Chang
Folding Screen with Flowers and Birds (Undated)

Ink and color on paper; eight-panel folding screen
183 x 359 cm
(130.5 x 30.9 cm x 8 ea.)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Unbo Kim Ki Chang
Jangsaengdo (Painting of Symbols of Longevity) (Undated)

Ink and color on silk
51 x 41.5 cm

ARARIO COLLECTION.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Woohyang Park Re Hyun
Anxiety (1962)

Ink and color on paper
121 x 105 cm
ARARIO COLLECTION.



Woohyang Park Re Hyun
Still Life (Before 1960s)

Ink and color on paper
68.5 x 44 cm
ARARIO COLLECTION.